맷집 없이 구원 없다

(마18:15~35)

21.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맷집 없이 구원 없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맷집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
여러분, 맷집이 뭡니까? 맷집이라고 하면은 매를 견디어내는 힘을 말합니다.
권투 선수들 중에 '조 칼자레'라는 선수가 있다 그래요.
이 사람이 40살쯤 됐는데 프로선수로 생활하고 있는 중에 4번 다운됐다고 그럽니다.
4번 다운이 됐는데 4번 다 이겼어요, 이 사람이 4번 다 KO로 이겼어요.
그래서 이 조 칼자레라는 사람의 맷집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맷집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 먼저 4번 다운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편 선수는 상대방을 다운 시키는 순간에 마음이 굉장히 업 됩니다.
그런데 다운을 당하고도 벌떡 일어나서 더 거세게 밀어붙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당황하게 되고 더 위축되게 되어있습니다.

게다가 때려도 때려도 넘어지지 않을 때 사람 지쳐 버려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선수가 마빈 헤글러, 맷집 1위라고 그래요, 맷집 1위.
이 선수는 아무리 얻어맞아도 몸의 밸런스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최홍만 선수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한대 맞으면 밸런스를 잃어버려 가지고, 주먹은 내뻗는데 허공을 때려요, 아무데나 막 내뻗는 겁니다.
근데 이 마빈 헤글러라는 선수는 아무리 얻어터져도 균형을 잃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맷집이죠, 맷집, 맷집이 좋은 거예요.
맷집이라는 게 충격이 가해지는데 그 충격이 온전히 흡수되지를 않는 겁니다, 견디어 낼 수 있는 힘이 강한 거지요.

믿음도 여러분, 마찬가지에요.
맷집이 없으면 구원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오늘 용서에 관한 본문이 나와요.
15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도 그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다 같은 의미의 내용이 지금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절만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우리가 용서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용서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용서 받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기본조건입니다, 용서 받았어요.
용서 받은 자로서, 아직도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먼저 받은 용서가 다 무효화 된다는 것이 만 달란트 빚진 자와 백 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백 데나리온과 만 달란트는 그 당시 갈릴리의 1년 전체 수익이 삼백 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만 달란트라는 게 어느 정도로 큰 돈 인줄 짐작이 가시죠?
그러니까 백 데나리온과 만 달란트를 오늘 날의 돈으로 환산을 대략적으로 하면, 만 달란트가 한 50억 되는 돈이라면, 백 데나리온은 만원 되는 돈입니다, 50만분의 1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십 억 어치를 용서 받았는데 만 원어치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오십 억 용서 받은 게 다 취소 돼버립니다, 만 원짜리 용서 안하는 바람에…
이 비유에 앞서서 베드로가 '일곱 번 용서합니까?'라고 자기 딴에는 횟수를 굉장히 맥시멈이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유대사회에서 세 번 까지는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그러니까 용서라는 단어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냥 아무리 아무리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무조건 다,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얘기에요, 무한대로.
그러지 않으면 내가 먼저 받은 구원의 용서, 구원으로 들어가는 용서함이 취소되어 버린다.
그래서 코리텐 붐 여사는 이렇게 까지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를 무너뜨리는 자이다'
내가 건너야 될 다리를 내가 무너뜨리는 게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과 비슷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맷집 얘기를 꺼냅니까?
맷집이 있어야 되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와 하늘 아버지라는 얘기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용서를 위해서.
또 용서를 내가 하는 것이 내 구원을 유지시킬 수 있는 길이에요.
구원을 받는 건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서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 받고 구원 받지마는 그 구원이 유지 되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효력을 유지하려면 내가 계속해서 무한대로 490번씩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부터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마음으로부터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여러분, 내 마음에 원망과 복수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찌어찌된 형편상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서 소송을 취하해 버립니다.
마음에서는 용서가 안돼요, 그러나 형편이 소송을 유지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송을 취소해…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송을 하지 않고 원수를 갚으려는 액션을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몸으로 만납니다.
가족관계도 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장생활을해도 몸으로 합니다.
몸을 중심으로 한 이 세상에서 내게 가해지는 손해, 내게 가해지는 상실, 내게 가해지는 훼손, 이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되려면, 마음이 몸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충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몸에 가해지는 충격에 대해서 마음의 맷집이 강하지 않으면, 마음이 견뎌내지 않으면, 마음이 그 충격을 이겨내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몸에 가해지는 몸으로 이루어진 삶에서 내게 가해지는 이 충격을 손해와 훼손과 상실을 마음이 그대로 흡수하면서는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다 아시죠?
춘추시대 때에, 월나라 왕 구천과 오나라 왕 합려가 싸움을 합니다.
이 오 나라 왕 합려가 굴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왕 합려가 죽을 때, 아들 부차에게 원수를 갚아 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부차가 편한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고 장작더미 위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서 자기 방을 들락거리는 모든 신하들에게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아버지의 부탁의 내용을 소리 지를 것을 명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부차야 너는 월 왕 구천에게 복수를 해야만 한다!' 라고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신하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아버지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진 않아서 아들 부차가 오나라의 왕이 됐어요.
그러나 아버지 합려가 죽은 그 충격을 마음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완전히 KO 된 거예요.
복수심이 이글이글 타고 복수심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
내 마음이 몸을 중심으로 한 삶에 가해지는 충격에 완전히 KO패 당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천을 이겨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구천이 굴욕적인 패배를 잊지 않고, 쓸개를 씹어가면서 복수를 계획하다가, 20년 뒤에 부차에게 또 이겨서 부차가 자살합니다. 이게 와신상담이에요, 와신상담.
몸에 가해진, 몸으로 이루어진 삶에 가해진 충격에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인 스테반 집사님을 한번 보세요.
죄 없는 자기 자신을 돌로 찍어 죽이는 현장에서 그들을 용서합니다.
근데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그들의 죄악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까지 드리게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이 열리고 천국을 봐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똑같이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나의 하늘 아버지' 하늘을 보면서 스테반 집사님의 마음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니까, 몸에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충격이 가해져도 그 충격을 마음이 흡수하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의 맷집이, 아무리 아무리 몸에 대해서 충격이 가해지고, 상실이 가해지고, 훼손이 가해져도 그 몸이 맞는 매의 충격을 마음이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의 맷집이 너무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 마음으로부터만 용서가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하러 다니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매를 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놓임을 받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아, 뭔 잘못이 있어서 매를 맞아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매를 맞았거든요.
그런데 억울해 하고 분해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왜요? '주님을 위하여 능욕당한 자로 여기게 된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주님을 위하여 능욕당한…',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께 가있어요, 주님은 어디가 계십니까?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계세요.
그러므로 마음이 주님 따라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몸에 대해서, 잘못 없이 가해지는 억울한 충격들에 대해서 그 충격을 마음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권투선수가, 마빈 헤글러가 아무리 쥐어 터져도 균형을 잃지 않는 것처럼, 채찍으로 맞고 맞고 맞았는데도, 마음이 그 몸으로 이루어진 삶의 현장을 떠나서 주님 가 계신 하늘의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몸이 맞는 충격을 흡수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마음이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러지 않으면,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떠나서 구름 위에 계신 주님과 함께 있어서 아버지 보좌 앞에 있지 않는 한, 어떻게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를 하겠습니까?
때릴 때마다 마음이 충격을 느끼고 충격을 다 흡수해 버릴 경우에,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 말 속에 여러분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먼저 용서 받은 자로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먼저 용서 받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에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당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주님의 십자가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따로 내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행동은, 주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과 나의 죽음을 일치시켜서 내가 죽었다고 믿는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에서 주님과 연합할 때에 내가 용서 받아요.
만 달란트 그러니까 50억 원어치 용서를 받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몸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놓임을 받는다는 것이고, 마음이 더 이상 몸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과 그 누구, 그 무엇, 그 어떤 일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늘로 마음이 올라간다는 걸 얘기해요.
하늘 아버지께로 간다는 걸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세상에 죽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늘에 대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늘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때에 어떤 사람이 몸으로 이루어져 진행되고 있는, 몸이 중심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몸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에서 몸으로 대변되는 '나'라고 하는 인격에 대해서 해를 끼치게 되요, 마음은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은 지금 몸이 처한 이 세상에서 당하는 현실을 느끼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천국을 먼저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내가 지금 돈 없고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상태에 있어도 내 아들이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버드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기뻐요.
이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런 것처럼, 내 몸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은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에 연합한 것이고, 십자가에 연합한 자가 믿음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용서가 포함돼 있는 거지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는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게 돼 있습니다.
믿는 자가 용서라는 행위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이미 용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용서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용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을 위한 십자가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 드립니다.
구원을 얻는 신앙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서 용서라는 행위를 따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믿음이 제대로 된 거라면,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제대로 연합이 된 사람이라면, 용서가 안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마음이 내려와서 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에 마음이 끼어들어가 있고, 묶여있고, 그래서 몸으로 이루어진 삶 속에 주어지는 충격이 그대로 마음에 전달돼서 맷집 제로의 상태에서 뚜드려 맞는 대로 나가떨어지는 거예요.
와신상담에서처럼, 부차가 정말 그 오랜 기간을 복수심을 불태우면서 살아간다는 건, 이건 완전히 KO패 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대로 믿었다면, 용서는 필수적이라는 얘기에요, 십자가에서 제대로 믿었다면.
그럼 용서가 안 된다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있는 상태로는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무효화되는 상태입니다.
구원이 무효화 된다는 게 제 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 달란트를 먼저 용서 받았다가 만 원어치를 용서하지 않으면 50억 용서 받은 거 다 취소되고 50억 다 돌려받아야 된다'
50억 낼 게 없어서 50억 빚을 주님께서 치러주신 건데, 주님께서 치러주신 것을 제대로 받았다면 만 원 용서 안할 수가 없는 건데, 주님께서 치러주신 돈을 다시 다 뱉어라.
결국 그거 갚으려면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 죄 값을 받으려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있는 것이 천국 얘기입니다, 천국.
앞에서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두 세 사람을 데려가고 교회에 얘기해서 안 되면 완전히 믿음세계 바깥에 있는 자로 여기라'
이거 또 무슨 얘기입니까?
나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게 잘못하는 행동을 할 만큼 지금 그가 천국 가는 길에서, 마음이 천국으로 향해야 되는 길에서 이탈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그 이탈한 사람을 다시금 천국 길로 들어서게 하라는 얘기지요.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가르치고 다시는 나에게 잘못하지 말게 하라, '나에게'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테반이 그러잖아요, 분명히 스테반의 몸을 쳐 죽여요, 그러나 스테반이 손해받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스테반을 쳐 죽일 수밖에 없는 현실은, 하늘을 향하는 길에서 이탈한 상태에서만 가능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용서받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은, 이 땅에서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가 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몸에 주어지는 충격이 마음에 흡수가 안 되니까, 마음은 하늘을 흡수하고 있으니까, 그 기쁨을 흡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뭘 말합니까?
믿음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몸으로 이루어진 이 땅의 삶에 마음이 붙어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늘에 계신 그분들에게 마음을 드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니까…
용서는 믿음 안에 필수적으로 들어있는 요소라는 이야기이지요.
맷집을 기르려면 마음이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고, 하늘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맷집 없이 구원 없습니다.
몸으로 이루어진 이 삶에 주어지는 충격에 대해 우리 마음이 맷집을 키우려면, 주님의 십자가에서 몸으로 이루어진 이 삶에 대해 죽고, 아버지 계신 하늘로 올라가야만 함을 기억하게 해 주셔서 실제로 우리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있으므로, 이 땅에 주어지는 손해와 모든 상실에 대해 완전한 맷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